



2017년 2월 26일(제812호) 연중 제8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마태 6,24)

이 말씀은 물질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작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당시에 하느님은 유대인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섬김의 대상이었고, 오늘에도 여전히 그들에게 그러한 자리매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이 말씀을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세상살이하듯 인간에 대한 그리스도의 이해와 사랑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재물로 인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인간 입장에서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평안한 시기에는 사람들이 크게 재물에 대해 집착하거나 불안한 마음을 지니지 않지만, 자연 재해나 국가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 생존 본능에 위협을 느끼며 재물에 대한 걱정과 여러 가지 불안함이 동반되며 물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군종교구에 살면서 매일 또 자주 들여다보는 것이 본당 통장입니다. 다른 민간 본당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매번 아쉽기도 하고, 또 행사들이 있을 때는 미리 계산하면서 마음이 불안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나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병사들에게 나누어 줄 선물을 계획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당에 찾아오는 병사들에게만 주는 것보다 가장 힘들고 열악한 근무지에 있는 병사들에게 산타 할아버지가 되어 주고 싶어서 10월 말부터 선물을 구상하고, 포장은 어떻게 할지,

몇 명에게 나누어 줄지, 내용물을 무엇으로 할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성모회장님과 군종병들의 아이디어 도움으로 구체적인 선물을 계획했는데 역시나 관건은 본당재정이었습니다. 최전방 GOP에 2개 대대가 포진해 있는데 그곳 간부님들과 병사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니 본당재정만으로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배신부님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준비될 수 있을까 하며 긴장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 노력을 앞세우다가 성탄이 다가올수록 ‘하느님께서 챙겨주실 거야.’라는 믿음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잘 이어졌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선물을 성당에 찾아오는 병사들뿐만 아니라, GOP를 지키는 형제들에게도 하나씩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가슴 깊숙이 와 닿았고 한편으로는 저 자신이 인간적 노력으로 살고 있는지,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마태 6,33)



이동명(시도요한) 신부
비룡(육군 제25사단) 성당 주임

- 제 1 특 시 이사 49,14-15
- 회 답 송 ◎ 내 영혼아, 하느님을 고요히 기다려라.
- 제 2 특 시 1코린 4,1-5
- 복음 반 호 송 ◎ 알렐루야
- 하느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
- 복 음 마태 6,24-34
- 영 성 제 송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이름 찬양하리이다.

진리를 살다

인간은 자신이 연약하고 쉽게 잘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세상은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무질서해지고 하느님의 창조질서가 깨뜨려져 갑니다. 많은 경우 세상의 악이 선을 이기고 불의가 정의를 짓밟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인간이 서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세상은 다양한 얼굴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행동 여하에 다른 사람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방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서로의 도움과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거룩한 미사 전례 문턱에 공동 죄고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준비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치라.”(마태 5,23-24) 이제 사제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참회를 권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실로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세력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는 어느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인간 안에 내재하고 인간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결과들로 인해 그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불평불만, 편견,

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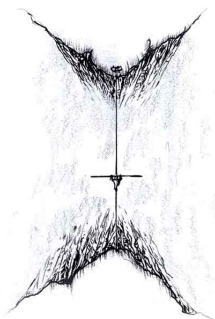
만용, 무질서, 공포, 고독, 쾌락주의, 이기주의, 미움과 증오 등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생활 안에서 드러나고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선행을 저지하며 사랑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과 세례자 요한은 악의 세력이 인간으로부터 기인된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사악함을 거듭 파헤치고 그로 인하여 기인된 멸망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도 악하고 불의하고 이기적이고 쾌락에 빠진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할 때에만 그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2000년 대회년에 세계사 안에서 저지른 교회의 잘못을 고백하고 겸손되어 용서를 청한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잘못된 모든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들에 대하여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뉘우칩니다. 그러므로 죄고백 권고 후에 행하는 침묵은 우리 스스로의 지난 잘못을 알아내고 생활을 반성케 하여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준비하게 합니다. 침묵은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의 목소리를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침묵을 잃어버리면 하느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침묵과 반성은 잃어버렸거나 잊어버린 하느님과 이웃을 다시 찾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주에 계속>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집지 발췌』

복 **음** **목**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나만 보고 와

말과 뒤는 보지 마.
앞에 있는 나만 보.
얼마나 왔는지
생각하지 마.
나만 보면 되는 거야.

천천히, 천천히
발란스를 잡고,
한걸음, 한걸음
움기면 되는 거야.

나만 보고 와.

상화이야기

악마를 무찌르는 미카엘 대천사



미카엘 대천사는 악마를 무찌르고, 선한 이와 교회를 수호하는 대천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 최후의 심판도에서는 저울을 들고, 선한 영혼과 악한 영혼의 무게를 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그림에서는 군인처럼 갑옷을 입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한쪽 발로 악마를 제압하고 있다.

미카엘 대천사가 서 있는 곳은 악마가 튀어나온 듯이 보이는 불이 활활 타고 있는(아마도 지옥의 불구덩이를 상징하는 듯하다) 곳을 배경으로 한 돌산이며, 붉은 겹옷을 휘날리며 선한 자를 보호하며 용맹하게 그려진 미카엘의 모습에서 신자들은 위안과 희망을 보았다.

김은혜(엘리사벳)

귀도 레니(1575-1642)
1636년 작, 캔버스 위 유화 293 × 202 cm
신태 미리아 상당, 이탈리아 로마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8주일: 상송대 박정호 신부

◆ 교구장 동정

- 이기자 성당 사목방문
때: 2월 26일(주일)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군(軍) 복음화, 새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